

도시주부의 부부간 공정성 인지 ·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

Perception of Equity in Marital Life · Home Management Behavior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of Urban Housewiv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 전 지원
교수 이정우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Master : Jee Won Chun

Professor : Jeong Woo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with priority given to the discourse on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sources and home management behavior for family life satisfaction. So,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equity in marital life, through which dynamic aspects is measured with family resource.

Some of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The perception of equity in marital life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state of employment and the degree of communication in couple. Housewives' home management behavior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perception of equity in marital life. It appears that intra system dynamics elements explain housewives' home management behavior.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the Model was found to be highly significant, accounting for 63% of the variances. Especially, housewives' family life satisfaction is influenced by the perception of daily life equity capable of evaluating each of a married couples' contribution and reward for family life rather than perception of psychological-emotional equity.

I.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동반하여 가정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가정은 자녀수 감소·핵가족화 등의 형태로 변화되었고 부자관계가 주축을 이루던 가족구조에서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로 정착되었다. 그에 따라 부부관계는 가족관계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다른 하위의 가족관계보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사랑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온정적 측면에서 부부관계를 살펴보기보다는 애정을 바탕으로 인격존중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가정의 제반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정경영 주체로서의 부부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부간의 역동적인 관계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상호작용 변수들 가운데 최근 관심있는 주제로 떠오르는 것이 “부부간의 공평성”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부들은 상호인격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권리와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선호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역할공유보다는 역할분업에 따라 각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며 이를 상호 인정해 주는 것을 보다 바람직한 부부상으로 인지하였다(박민자, 1992: 77~78). 즉, 개인의 기여에 비례한 보상 분배를 의미하는 공평성은 일률적인 평준화가 아닌 비율평등의 개념으로서, 이러한 공평성에 근거하여 부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성향의 문화배경을 지닌 서구에서는 부부간의 자원배분이나 교환 등과 같은 결혼생활의 현실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가능했으나, 핵가족 지향적인 요소와 가족주의 가치관에 근거한 집단주의적 성향이 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부부간 공평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평성 개념에 근거한 부부간의 손익계산을 한다는 것이 정서상 익숙치 못한 요소가 다소 있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 및 부부 공동으로 가족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동반자적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의 확대는 부부간 공평성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부부관계를 하나의 단위로서 보다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에 대한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부간 공평성은 현대사회의 부부관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 즉, 부부간 공평성 인지는 결혼생활에서 자신의 노력한 정도와 그로부터 얻는 만족의 정도를 배우자와 비교하여 결혼생활의 공평성을 평가함으로써(박정희, 1999: 36),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배우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삶을 위해 도우며 배려하는 조화로운 부부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인 것이다.

이같이 사회구조와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부부간의 공평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가정관리를 위해서 가정자원관리측면에서의 부부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현대사회의 가정관리는 인적자원의 특성과 활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가정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아직까지 대인적 자원(*interpersonal resources*)으로서의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가 가정경영의 수행요소인 가정관리행동과 산출요소인 가정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으나, 이를 규명해 보는 연구는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경영의 주체가 되는 부부간의 역동적 관계양상인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에 관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가족이 갖는 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이 어떻게 가족관계와 상호작용하며 더 나아가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와와의 종합적인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부간의 공정성

1) 부부관계에 비추어 본 공정성의 개념과 공평성 이론

공평성(or 형평성, equity)은 대인간의 상호작용 속에 산출된 보상을 분배하는 유형으로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라는 정의를 할 수 있다 (Cate, Lloyd, Henton & Larson, 1982; Jeffery, Clark, & James, 1998).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義論)에서 출발한 공평성의 개념은 인간의 권리를 평등하게 존중하여 모든 사람에게 만족과 심리적 복지감을 주며, 그로 인해 사회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사적·공적 관계에 적절하고 합당한 질서를 부여하는 원리이며, 개인이든 집단이든 행위주체가 준수해야 할 규칙인 공평성이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대상으로 대두된 것은 Adams(1965)의 가설에 의해서이다. Adams(1965: 267~299)에 의하면 인간은 서로간에 주고받는 것이 유사한 조건에서 관계를 형성·유지하며,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함과 동시에 타인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지속적 관계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평성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2가지 원칙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제1의 원칙은 '호상정의(互相正義)'로서 인간은 서로 동등하고 올바르게 상대해야 하며, 제2의 원칙은 '배분정의(配分正義)'로서 인간은 각자가 자기의 몫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평성 이론에서의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기보다는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만큼 상대방에게도 그 만큼을 행함으로써 인간을 합리적 이면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존재이다. 또한 공평성 이론에서의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집단의 이익까지도 추구함으로써 단순히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닌 동등한 차원에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지닌 존재이다(차하순, 1983: 6~13).

인간은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 자신의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하고, 그 결과 칭찬·지위·만족·

금전적 보상 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보상을 획득한 상황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는 사회교환이론과 공평성 이론은 차이를 보인다. 즉, 사회교환이론은 상대방의 손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여 보상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만족감을 얻지만, 공평성 이론은 각 개인의 상이한 역할과 기여에 따른 보상의 양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두 상황 모두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Yogev & Brett, 1985: 609~610). 즉, 공평성 이론의 중요한 시사점은 자신이 투입한 자원에 비해 산출된 보상이 적정치 못한 두 상황 모두에서 불만을 초래하고, '자신의 투입과 결과의 비율'이 '상대방과의 투입과 결과의 비율'과 같을 때 공평성을 인지하게 되고 그에 따른 관계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Brehm, 1992; Hatfield, Traupmann & Walster, 1979; Yogev & Brett, 1985).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평성이란 개인의 기여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결과에 대한 동일한 분배를 하는 결과의 측면에 초점을 둔 평등의 상위개념으로서 일률적인 평준화가 아닌 '기여에 비례한 보상'을 강조한 개념이다.

이같이 자신의 투입된 자원과 산출된 보상에 대한 공평성 정도의 지각은 수치화된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인지된다(Blair & Johnson, 1992; Gager, 1998; Jane, Myra & Kathryn, 1998; Major, 1985; McQuillan, 1998; Thompson, 1991). 따라서 부부간의 공평성은 가정 내 역할분담 그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그에 따라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공평성 이론에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공평한 분배에 대한 상대성이다(Davidson, Balswick & Halverson, 1983: 38~40). 가정 내 의사결정이나 가사노동분담을 어느 누가 더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만이 부부간의 공평성을 파악하는 단서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 각 가정의 상황에 따른 관리행동이 두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인식될 때에 부부는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다. 즉,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나 의사결정시 행사하는 권력의 양보다는 그에 따른 상대적인 공평성 정도의

인지수준에 따라 결혼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는 것이다(박민자, 1992: 81).

이와 같이 결혼생활에서의 부부들이 공평성을 인지하는 과정은 매우 역동적이며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같은 배경에서 볼 때 부부간의 공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부부관계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며, 가정생활의 안정성은 물론 사회의 안정성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최유정, 1999: 130) 결국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는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2)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 및 관련연구

부부간 공평성 인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부부간 공평성 인지와 만족감/우울감과의 관계규명에 관한 연구, 부부간 공평성인지와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및 맞벌이 가정의 역할분담, 특히 가사분담의 불균형에 따른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공평성 인지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체적인 결과들은 관계가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부부관계에서는 만족감·친밀감·감사함·안정감·관계몰입·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조정문, 1995; Cate, Lloyd, Henton & Larson, 1982; Cate, Lloyd & Long, 1988; Duck, 1988; Edward & Acock, 1984; Hammond & Larson, 1996; Johnson & Jacob, 1997; Larson, Hammond & Harper, 1998; Michaels, Schafer, Keith & Lorenz, 1984; Rachlin, 1987; Schafer & Patricia, 1981; Sprecher, 1988; Traupmann, Peterson, Utne & Hatfield, 1981; VanYperen & Buunk, 1991; Ward, 1993; Wilkie, Ferree & Ratcliff, 1998). 이와는 달리 관계가 불공평하다고 인지한 부부관계에서는 우울·분노·죄의식·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며, 결혼만족도·관계몰입 정도 및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박정희, 1999; Burns, 1995; Davidson, 1984; Longmore & DeMaris, 1997; McQuillan, 1998; Pearlin, 1995; Reynolds, 1991; Rosenberg, 1979; Schafer & Keith, 1980; Schafer, Keith & Lorenz, 1984; Sprecher, 1986; 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 또한 부부간의 권력관계와 우울감을 공평성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한 Mirowsky(1985)는 권력이 클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가질 때 우울감이 더 커진다는 결과를 보여 공평성 이론의 기본전제를 충족시켰다.

부부관계에서의 공평성 이론 적용과 그에 대한 유용성은 부부의 공평성 인지가 결혼만족도나 우울감과 관련있음이 Traupmann(1978)의 연구에 의하여 입증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부부간 공평성을 측정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역할분담에 초점을 두며, 대체로 부부간의 가사노동·자녀양육·의사결정 등의 역할분담에 따른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DeMaris & Longmore, 1996; Greenstein, 1996; Smith & Schroeder, 1984; VanYperen & Buunk, 1990; Vonffesen, 1981; Wesson, 1996; Yogev & Brett, 1985). 즉, 부부간의 공평성은 의사결정·역할분담·정서적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공평성이 실현될 때 인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공평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부간의 공평성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공평성 인지정도가 부부간에 괄목할만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해 부부 모두 비슷한 정도의 공평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희, 1998: 117~119). 이와같이 전반적인 결혼생활을 공평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공동체적 관점'에 입각하여 현재의 역할분담이나 의사결정이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그것이 부부나 가족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되면 불공평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최유정, 1999: 133).

이와 같이 부부간 공평성을 측정하는 평가기준이 가치(Valued Outcomes)·준거집단과의 비교(Comparisons Referents)·정당화(Justifications) 등과 같은 주관적 사안임을 감안하여 최근 부부간 공평성에 관한 연구는 비교문화적 관점이나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연구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부부가 가족역할을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 가정관리행동 및 관련연구

가정관리는 가정생활의 기본이며 가족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 관리하는 계획적 활동이다(Maloch & Deacon, 1966: 31~35). 이는 가정관리자가 단순히 가사수행이 아닌 가족 및 가정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건전한 생활이념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가정의 인적 · 물적 자원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 · 실행한 후 가정생활에 미친 결과를 평가하며 나아가 더 효과적인 다음 계획을 세워 수행하는 과정(장명옥, 1976: 12)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관리는 매일매일의 결정과 목적적 행동을 통해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간의 가치 · 목표 · 표준에 의해 자원을 관리하는 체계이다.

현대의 가정관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체계론적 입장에서 강조되고 있어, 그 의미와 중요성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화는 가정의 기능은 물론 관리의 개념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즉, 과거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이 가정관리의 주요과업이었다면, 현대 가정관리활동은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의 인지적 · 정서적 측면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가족자원의 사용과 분배에 관련된 가정관리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동시에 가정관리자인 주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복잡한 문제해결과 가족원의 변화하는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가정관리 수행이 필수적 과업이 되었다. 그리하여 가정관리행동은 가족 개개인의 인격형성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정문화가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주제로 제기된다.

대체로 많은 연구에서 가정관리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가정관리자의 연령 · 교육수준 · 직업 · 소

득 등을 살펴보았으나, 설명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가정관리를 위해서 가족환경의 인적자원인 부부관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 이명숙(1998)의 연구 및 가정관리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로 가족체계 내 역동성 개념을 도입할 것을 강조한 이연숙(1996)의 연구는 가정관리행동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지지해 주는 연구로 사료된다.

이에 현대가정의 관리행동에서 강조되는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인지적 · 정서적 측면을 가정관리행동의 영향변인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가족자원의 사용과 분배에 관련하여 가정관리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역동적이며 창의적인 가정관리행동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 있어 생활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본다.

3. 가정생활만족도 및 관련연구

만족에 대한 개념은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에 따라 주관적이며 그 정의가 다양하다. Burr(1970: 29)는 만족이란 개인이 목표나 욕망의 달성정도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상태라고 하였으며, Strumpel(1973: 72)은 현재의 상황을 자신의 목표에 근거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만족을 목표와 현실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임정빈(1988: 25~27)은 만족을 인간이 갖는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간의 일체정도에서 느끼는 충족감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생활만족이란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목표성취를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환경에 잘 적응하여 정서적 ·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Kalish, 1975: 60~69). 이로써 개인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및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게 되어 자신을 가치롭게 인정하고 낙천적 태도와 감정을 유지함으로써 (Neugarten, Havighurt & Tobin, 1961: 141) 생활만족은 개인의

정신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Medley, 1976: 488). 특히, 인간에게 있어 생활의 근거지인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은 개인의 전체 생활 만족도는 물론, 삶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이라 하겠다(박미석, 1996: 30).

가정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urr(1970)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만족감 연구에서 재정문제·사회활동·가사작업·동료감·성·자녀양육 등 6가지 영역으로 가정생활을 구분하였다. Hayes와 Stinnett(1971)는 가정생활만족도를 결혼생활·건강·생활수준·직업·자녀관계·가사작업과 사회참여·자아개념 등 7가지 영역으로 가정생활만족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Deacon과 Firebaugh(1981)는 가족체계의 사회심리적 하위체계에서 생활표준·동료감·자녀관계·시가관계를, 관리적 하위체계에서 경제문제·가사노동·의사소통·전반적 만족에 관한 내용으로 가정생활만족도를 구성하였다. 국내연구에서 임정빈(1988)은 가정생활영역을 생활표준의 일치·경제적 만족·가족간의 의사소통·가사노동·자녀문제·남편과의 관계·시댁과의 관계·전반적 생활만족을 설정하여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정숙(1994)은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자녀와의 관계·결혼전반·여가생활·자신의 역할·재정문제·가사노동의 내용으로 가정생활만족도를 구성하였고, 한국 도시인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이정우 등(1998)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인적 자원관리 측면에서는 가족원과의 상호관계 및 결혼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가정생활을, 물적 자원관리 측면에서는 가정경제를, 가정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여가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Campbell 등(1976)에 의하면 가정생활만족에 기여하는 주요인에는 객관적 특성보다는 주관적 변수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였으며, 특히,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를 지목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들도 일반적 변수보다는 점차로 애정·의사소통과 같은 대인적 자원에 속하는 변인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부인의 경우 부부간 공평성 인지정도가 가정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인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비, 1999; 조정문, 1995; 홍윤정, 1996; Haaga, 1988; Mintzer, 1985; Wilkie, Ferree & Ratcliff, 199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는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도시주부의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는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은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은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배경변인,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 및 가정관리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 선정

1) 사회인구학적 변인/심리적 변인 척도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주부의 부부간 공평성 인지·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교육수준·직업유무·월평균 가계소득·결혼지속년수·자녀수·건강상태를 포함한 7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심리·주관적 변인으로는 성역할 태도·자원적정 인지도·의사소통도·생활수준 인지도의 4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성역할 태도 측정도구는 Osmond와 Martin(1975), DeMarise와 Longmore(1996) 등의 연구

를 기초로 하여 총 10문항($\alpha=.79$)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임을 의미한다. 자원적정인지도 측정 도구는 Rowland 등(1985), 김경숙(1993) 등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인적 자원·경제적 자원·환경적 자원의 총 6문항($\alpha=.63$)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적정인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주부가 인지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도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는 김은숙(1983), 장병옥(1997) 등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총 5 문항($\alpha=.91$)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도가 높고,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생활수준인지도는 주부 자신이 가정의 생활수준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로, 생활수준의 범위를 최고 5점에서 최저 1점으로 분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가 스스로 생활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부부간의 공평성 인지도

부부간의 공평성 인지 측정도구는 Traupmann, Petersen, Utne와 Hatfield(1981)의 Equity/Inequity Scale과 국내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박정희(1998)에 의해 개발된 PES(Perception of Equity Scale in Marital relationship)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PES는 중 '심리·정서적 영역'과 '일상생활 영역'으로 구분되는 세부적 공평성 측정(DMES: Detailed Measure of Equity Scale)을 위한 16문항($\alpha=.71$)을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방식으로 '남편이 훨씬 더 그렇다'의 -2점부터 '내가 훨씬 더 그렇다'의 2점으로 '서로 비슷하다'의 0은 공평한 대우, -2에서 -1은 부당한 대우, 1에서 2는 유리한 대우로 구분하였다. 즉, 0에 가까울수록 부부간의 공평성 인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서로 비슷하다'에 3점, '남편 및 내가 약간 더 그렇다'에 2점, '남편 및 내가 훨씬 더 그렇다'에 1점으로 재점수화하였다. 즉, 점수가 3점에 가까울수록 부부간 공평성을 높게 인지한 것으로, 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부부간 공평성을 낮게 인지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3) 가정관리행동

가정관리행동 측정도구는 장명옥(1976)이 개발하여 지금수(1992), 이정숙(1994)에 의해 수정·보완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창의·평가·통솔·인간관계·계획·소비·가사작업 등 7개 하위영역의 총 28문항($\alpha=.88$)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관리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가정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측정도구는 Hays와 Stinnett(1971)의 중년기 생활만족 척도(MYLSS)를 기초로 한 최동숙(1991), 장병옥(1997)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가정생활 전반·부부관계·자녀와의 관계·자신의 역할·가사노동·재정문제·생활표준의 일치 등의 7개 하위영역의 총 12문항($\alpha=.89$)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 1명 이상을 둔 20세 이상~60세 이하인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지역구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25개 구를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4구씩(강남구·강서구·서초구·영등포구·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선정하여 그 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였다. 본 조사 실시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1999년 6월 18일~7월 5일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800부를 배부하여 부실기재 되었거나 연구에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한 613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PC+를 이용하여 Cronbach' α 계수,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도시주부의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

도시주부의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부가 인지한 부부간 공평성은 주부의 직업유무 ($p < .001$) · 의사소통도 ($p < .001$)에 따라 집단간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주부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주부가 부부간 공평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하위영역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을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주부가 부부간 공평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높은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부부간 공평성을 낮게 인지한다는 최유희정(1999), McQuillian(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일상생활 영역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1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13)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연 령	20대	20(3.3)	직업유무	전업주부	330(53.8)	
		30대	260(42.4)		취업주부	283(46.2)	
		40대	253(41.3)	교 육 수 준	고졸 이하	190(31.0)	
		50대	80(13.1)		전문대 및 대졸 대학원 졸	360(58.7) 63(10.3)	
	월평균 가계소득	150만원 미만	20(3.3)	자녀수	1명	117(19.1)	
		150만원~250만원	184(30.0)		2명	412(67.2)	
		250만원~350만원	180(29.4)		3명 이상	84(13.7)	
		350만원~450만원	110(17.9)	건 강 상 태	상	394(64.3)	
	450만원 이상	119(19.4)	중		166(27.1)		
	결 혼 지속년수	10년 미만	137(22.3)	하	53(8.6)		
10년~15년		168(27.4)					
15년~20년		120(19.6)					
20년~25년		100(16.3)					
	25년 이상	88(14.4)					
심리적 변인	성역할 태도	전통적	202(33.0)	자원적정 인지도	상	167(27.2)	
		양성적	240(39.2)		중	250(40.8)	
		근대적	170(27.2)		하	196(32.0)	
		M=3.51 SD=.52		M=3.45 SD=.57			
의사 소통도	상	129(21.0)	생활수준 인지도	상	125(20.4)		
	중	323(52.7)		중	386(63.0)		
	하	161(26.3)		하	102(16.6)		
	M=3.67 SD=.70		M=3.04 SD=.65				

* 성역할태도 · 자원적정인지도 · 의사소통도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 $M+1/2SD$ 이상
- 중: $M-1/2SD \sim M+1/2SD$
- 하: $M-1/2SD$ 이하

<표 2> 배경변인에 따른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

(N=613)

	N	심리·정서적 영역			일상생활 영역			전 체			
		M	SD	DMR	M	SD	DMR	M	SD	DMR	
연 령	20대	20	2.26	.29		2.46	.25	B	2.36	.23	
	30대	260	2.32	.37		2.29	.38	A	2.30	.32	
	40대	253	2.32	.35		2.30	.37	A	2.31	.30	
	50대	80	2.29	.39		2.25	.39	A	2.27	.34	
	F			.34		1.85			.62		
직 업 무	전 업 주 부	330	2.27	.37		2.21	.36		2.24	.31	
	취 업 주 부	283	2.37	.35		2.40	.38		2.38	.30	
	t			-3.41**		-6.55***			-5.89***		
교 육 수	고졸이하	190	2.29	.36		2.26	.37		2.27	.31	
	전문대 및 대졸	360	2.32	.37		2.31	.37		2.32	.31	
	대학원졸	63	2.36	.33		2.32	.42		2.34	.32	
	F			.97		1.33			1.46		
월평균 가계소득	150만원 미만	20	2.26	.35		2.28	.35		2.27	.30	
	150만원~250만원	184	2.28	.35		2.28	.37		2.28	.30	
	250만원~350만원	180	2.33	.36		2.31	.39		2.32	.32	
	350만원~450만원	110	2.31	.37		2.32	.40		2.31	.34	
	450만원 이상	119	2.34	.38		2.28	.34		2.31	.31	
F			.70		.27			.42			
결 혼 수	10년 미만	137	2.30	.35		2.34	.36		2.32	.31	
	10년~15년	168	2.34	.37		2.30	.38		2.32	.31	
	15년~20년	120	2.31	.35		2.30	.36		2.30	.30	
	20년~25년	100	2.33	.39		2.27	.40		2.29	.33	
	25년 이상	88	2.29	.37		2.26	.38		2.27	.32	
F			.49		.77			.52			
자녀수	1명	117	2.30	.43		2.40	.37	C	2.35	.35	B
	2명	412	2.32	.36		2.29	.36	B	2.31	.30	AB
	3명 이상	84	2.29	.43		2.19	.41	A	2.24	.37	A
F			.32		7.50**			2.89			
건 강 상 태	상	394	2.34	.35	B	2.31	.37		2.31	.31	
	중	166	2.31	.36	AB	2.28	.35		2.31	.30	
	하	53	2.22	.42	A	2.24	.44		2.23	.36	
F			2.53*		2.17			2.18			
성역할 태 도	전통적	202	2.29	.39		2.29	.35		2.29	.31	
	양성적	240	2.34	.35		2.32	.37		2.33	.31	
	근대적	170	2.31	.35		2.29	.41		2.30	.32	
F			1.51		.41			.98			
자원적정 인지도	상	196	2.32	.37		2.30	.41		2.31	.34	
	중	250	2.30	.35		2.32	.35		2.31	.29	
	하	167	2.32	.38		2.27	.38		2.29	.32	
F			.15		.93			.21			
의 사 소 통 도	상	129	2.32	.40		2.37	.37	B	2.35	.32	B
	중	323	2.33	.36		2.33	.35	B	2.33	.30	B
	하	161	2.27	.35		2.18	.39	A	2.26	.32	A
F			1.50		11.62***			7.35***			
생활수준 인지도	상	125	2.30	.41		2.27	.37		2.27	.34	
	중	386	2.33	.35		2.31	.38		2.32	.31	
	하	102	2.27	.35		2.30	.36		2.28	.29	
F			1.04		.36			.74			

* p< .05 ** p< .01 *** p< .001 D: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2명의 자녀를 가진 주부에 비해 3명 이상의 자녀수를 둔 주부는 일상생활 영역의 부부간 공평성을 낮게 인지하였다. 또한 육체적으로 건강한 주부일수록 부부간 심리·정서적 측면의 공평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DeMaris & Longmore, 1996; Mirowsky, 1985; Spitz, 1988; Suitor, 1991)로, 개인의 육체적 건강은 정신적 건강의 선행조건이며, 부부간 공평성 측정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심리적 변인인 의사소통도에 따라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는 일상생활영역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주부일수록 일상생활 영역의 부부간 공평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홍윤정(1996), Willis(1982), Goodnow와 Warton(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가정체계 내 역동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수준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이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은 교육수준($p < .05$)·건강상태($p < .01$)·성역할태도($p < .05$)·자원적정인지도($p < .001$)·의사소통도($p < .001$)에 따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닐수록,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하위영역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주부의 연령에 따라서는 소비행동과 인간관계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은 주부일수록 소비행동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40대 주부들의 소비행동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주부의 인간관계행동이 30대 이상의 주부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새로운 가정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부부관계 및 시댁과의 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유무에 따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점은 기혼여성의 취업이 주부 역할과 대체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에서는 평가·통솔·인간관계·가사작업 행동이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통솔행동과 인간관계행동에 있어서는 취업주부의 관리행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평가행동과 가사작업행동에서는 전업주부의 관리행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통솔·인간관계·계획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관리행동이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라서는 소비행동과 인간관계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비행동에 있어서는 결혼지속년수가 20~25년 미만인 주부의 점수를 정점으로 행동수준이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인간관계행동에서는 결혼지속년수가 20년~30년 미만인 집단을 제외하고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소비행동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수가 1명인 주부보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부의 경우 소비행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부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통솔·인간관계·가사작업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주부집단이 그렇지 못한 주부집단보다 가정관리행동이 효율적으로 나타나 Maloch와 Deacon(197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심리적 변인인 성역할 태도에 따라서는 통솔·인간관계행동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주부일수록 통솔행동과 인간관계행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자원적정인지도에 따라서는 가사작업·인간관계·창의·평가·계획행동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주부가 인지한 자원수준이 적정할수록 가정관리행동의 수준이 높았다.

의사소통도에 따라서는 가사작업행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각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가정관리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가정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정의 의사소통도를 높여야 한다는 서리나·한경미(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관리행태

연령	N	가정관리행태												진체												
		창의			소비			평가			통솔			인간관계			계획			가사과업		진체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20대	20	2.90	.53	A	3.38	.67	A	3.49	.44		3.44	.63		3.94	.53		2.92	.76		3.84	.51	A	3.53	.39		
30대	260	3.10	.58	AB	3.66	.61	B	3.33	.60		3.46	.75		3.86	.64		2.94	.80		3.98	.66	AB	3.59	.46		
40대	253	3.15	.57	B	3.77	.56	B	3.33	.57		3.39	.67		3.71	.72		2.86	.79		4.09	.58	B	3.61	.41		
50대	80	3.20	.59	B	3.68	.57	B	3.44	.46		3.30	.81		3.67	.72		2.94	.76		4.00	.64	AB	3.60	.41		
F	184				3.56*			1.26			1.07			2.92*			.52			2.00			2.1			
직업유무	330	3.17	.59		3.74	.57		3.39	.56		3.35	.77		3.35	.77		2.92	.80		4.07	.63		3.62	.43		
	283	3.08	.56		3.66	.61		3.30	.58		3.48	.65		3.48	.65		2.90	.78		3.96	.61		3.57	.43		
t	1.91				1.64			2.10*			-2.37*			-1.16*			.35			2.26*			1.26			
교육수준	190	3.14	.62		3.63	.64		3.35	.61		3.22	.77		3.67	.69	A	2.78	.75	A	3.99	.63		3.52	.45	A	
	360	3.12	.57		3.74	.56		3.35	.54		3.48	.68	A	3.79	.69	A	2.95	.80	AB	4.05	.61		3.63	.41	AB	
	63	3.12	.53		3.67	.55		3.35	.62		3.57	.71	B	3.97	.63	B	2.99	.79	B	3.96	.69		3.64	.45	B	
F	.10				2.54			.01			10.5**			5.20***			3.33*			.84			4.11*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20	3.06	.62		3.55	.58	A	3.16	.70	A	3.28	.82		3.68	.59		2.82	.73		4.11	.62		3.53	.40	
	150~250만원	184	3.12	.59		3.72	.61	AB	3.40	.58	B	3.31	.79		3.68	.72		2.93	.82		4.01	.62		3.58	.45	
	250~350만원	180	3.09	.57		3.63	.61	AB	3.31	.52	AB	3.45	.67		3.73	.68		2.85	.74		3.97	.62		3.56	.42	
	350~450만원	110	3.16	.58		3.71	.52	AB	3.33	.58	AB	3.55	.64		3.94	.64		3.01	.80		4.03	.64		3.66	.42	
	450만원 이상	119	3.17	.57		3.79	.58	B	3.38	.59	AB	3.40	.72		3.86	.67		2.85	.80		4.10	.62		3.64	.41	
F	.58				1.77			1.12			2.24			3.27			.94			.98			1.43			
건강상태	상	394	3.17	.59		3.72	.58		3.37	.56		3.48	.70	B	3.85	.67	B	2.92	.80		4.06	.61		3.64	.44	B
	중	166	3.05	.55		3.67	.58		3.31	.57		3.25	.75	A	3.64	.69	A	2.87	.75		3.92	.64		3.52	.40	A
	하	53	3.07	.58		3.64	.64		3.31	.60		3.38	.72	AB	3.67	.72	AB	2.89	.84		4.08	.65		3.57	.42	AB
F	2.49				.86			.92			5.94**			6.03**			.29			3.19*			4.77**			
결혼 지속 년수	10년 미만	137	3.57	.59		3.54	.59	A	3.27	.59		3.43	.67		3.85	.60	B	2.91	.76		3.89	.69	A	3.63	.44	
	10년~15년	168	3.11	.58		3.76	.61	B	3.38	.56		3.45	.78		3.84	.66	B	2.99	.78		4.05	.62	AB	3.64	.46	
	15년~20년	120	3.10	.57		3.75	.56	B	3.36	.56		3.44	.66		3.80	.72	AB	2.83	.85		4.06	.58	AB	3.61	.40	
	20년~25년	100	3.22	.54		3.81	.56	B	3.31	.61		3.38	.74		3.62	.76	A	2.81	.77		4.10	.57	B	3.61	.43	
	25년 이상	88	3.20	.59		3.64	.57	AB	3.43	.52		3.30	.76		3.67	.71	AB	2.95	.77		4.03	.62	AB	3.60	.41	
F	1.58				4.33**			1.27			.78			2.71*			1.13			2.15			1.37			

<표 3> 계속

자녀 수	N	가정 관리 행동																							
		창의			소비			평가			통솔			인간관계			계획			가사좌업			전체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1명	117	3.04	.58		3.52	.65	A	3.31	.59		3.85	.64		2.83	.77		3.96	.68		3.56	.44				
2명	412	3.14	.57		3.73	.57	B	3.36	.56		3.76	.69		2.90	.79		4.02	.61		3.60	.43				
3명 이상	84	3.18	.60		3.78	.58	B	3.37	.54		3.73	.74		3.02	.81		4.10	.62		3.65	.42				
F		1.78			6.76**			.40			.99			1.36			1.27			1.04					
성역할 태도																									
진통적	202	3.11	.56		3.69	.61		3.37	.51		3.71	.69	A	2.83	.77		3.95	.64	A	3.55	.42	A			
양성적	240	3.11	.60		3.69	.58		3.33	.60		3.74	.69	A	2.95	.78		4.04	.60	AB	3.59	.43	AB			
근대적	170	3.17	.61		3.72	.58		3.35	.59		3.89	.67	B	2.93	.82		4.09	.62	B	3.66	.44	B			
F		.78			.11			.21			3.53*			1.44			2.39			3.06*					
자원	196	3.23	.57	B	3.75	.59	B	3.44	.56	B	3.91	.70	C	3.00	.82	B	4.17	.57	B	3.70	.43	C			
적경	250	3.12	.59	AB	3.72	.57	AB	3.33	.57	AB	3.77	.68	B	2.90	.79	AB	4.00	.63	A	3.58	.42	B			
인지도	167	3.02	.56	A	3.61	.61	A	3.27	.57	A	3.63	.66	A	2.79	.72	A	3.88	.63	A	3.49	.41	A			
F		5.97**			2.55			4.35*			7.64**			3.09*			10.05***			12.09***					
의사	129	3.28	.63	B	3.90	.56	B	3.59	.53	C	4.46	.42	C	3.11	.88	B	4.13	.69		3.90	.41	C			
소통도	323	3.08	.53	A	3.67	.58	A	3.33	.56	B	3.79	.53	B	2.87	.76	A	3.99	.59		3.58	.39	B			
F	161	3.10	.61	A	3.61	.60	A	3.19	.56	A	3.19	.60	A	2.80	.73	A	3.99	.63		3.40	.40	A			
F		5.90**			10.00***			18.70***			51.85***			204.65***			6.33**			57.49***					
생활	125	3.11	.52		3.71	.56		3.38	.56		3.86	.65		2.83	.74		4.07	.66		3.62	.42				
수준	386	3.15	.60		3.72	.59		3.36	.57		3.77	.70		2.94	.81		4.01	.61		3.61	.44				
인지도	102	3.07	.57		3.59	.63		3.27	.54		3.71	.69		2.85	.75		4.02	.62		3.53	.39				
F		.69			2.12			1.22			1.35			1.35			.40			1.65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부부간 공정성 인지도에 따른 가정관리행동

부부간 공정성 인지도	N	가정관리행동												전체								
		창의			소비			평가			통솔			인간관계			계획			가사작업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심리·정서적 영역	239	3.08	.54		3.73	.59		3.45	.69		3.83	.69		2.91	.79		3.97	.63	A	3.60	.42	
		3.10	.57		3.67	.54		3.41	.70		3.69	.68		2.96	.77		4.00	.59	AB	3.57	.44	
		3.20	.62		3.68	.63		3.37	.78		3.78	.69		2.84	.80		4.10	.63	B	3.62	.43	
일상생활 영역	224	3.13	.57		3.68	.59		3.61	.63		3.89	.68		2.96	.79		3.94	.62	A	3.63	.45	
		3.13	.57		3.76	.57		3.32	.75	A	3.76	.67	AB	2.87	.78		4.09	.61	B	3.59	.41	
		3.11	.61		3.65	.61		3.27	.75	A	3.64	.70	A	2.88	.79		4.05	.63	AB	3.56	.44	
전체	191	3.13	.56		3.70	.59		3.58	.67	B	3.91	.68		2.86	.77		3.94	.64	A	3.64	.46	
		3.10	.56		3.73	.57		3.38	.67	A	3.73	.65	A	2.88	.81		4.04	.59	AB	3.58	.40	
		3.16	.62		3.65	.62		3.27	.80	A	3.69	.72	A	2.86	.78		4.07	.64	B	3.58	.44	
F		.74		.94		.65	8.95***		6.11*		1.41		2.33		1.54					1.38		

* p < .05 ** p < .01 *** p < .001

4. 도시주부의 부부간 공정성 인지도에 따른 가정관리행동

부부간 공정성 인지도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에서 통솔·인간관계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는 일상생활 영역의 공정성 인지정도에 따라 통솔·인간관계·가사작업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심리·정서적 영역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참조).

부부간 공정성을 높게 인지한 상집단의 주부가 통솔행동과 인간관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부부간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주부도 가족의 정서적·정서적·물질적 생활을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통솔하는 가정 분위기가 조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부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통솔행동과 상호 신뢰하고 존경하는 인간관계 행동의 수행은 가족원의 건전한 생활자세를 확립시키고 가정질서를 정립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일상생활의 공정성을 높게 인지한 주부의 가사작업 행동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주부에게 가사노동 수행이 집중되던 과거의 양상에서 벗어나 부부가 서로 노력과 시간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져 이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5.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제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의사소통도($\beta = .42$)·자원적정인지도($\beta =$

- 1) 중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주부의 연령과 결혼지속년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그 중 주부의 연령을 선택하였다.

〈표 5〉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가정생활만족도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00	-.01	상수 = .25 $R^2 = .63$ F ratio = 52.56*** D-W = 1.89
	직업유무	.01	.01	
	교육수준	-.00	-.02	
	월평균 가계소득	.00	.06*	
	자녀 수	-.04	-.06*	
	건강상태	.04	.06*	
심리적 변인	성역할태도	-.04	-.04	
	자원적정인지도	.19	.20***	
	의사소통도	.33	.42***	
	생활수준인지도	.08	.11***	
부부간 공평성인지도	심리·정서적 영역	-.07	-.05	
	일상생활 영역	.17	.12***	
가정관리행동	창의	.02	.03	
	소비	.01	.01	
	평가	.00	.01	
	통솔	.08	.11***	
	인간관계	.14	.18***	
	계획	-.02	-.03	
	가사작업	.03	.03	

* $p < .05$ ** $p < .01$ *** $p < .001$ D-W: Durbin Watson 계수
가변수 처리: (직업유무) 0=전업주부, 1=취업주부

.20) · 인간관계행동($\beta = .18$) · 일상생활 영역의 공평성 인지도($\beta = .12$) · 통솔행동($\beta = .11$) · 생활수준 인지도($\beta = .11$) · 주부의 건강상태($\beta = .06$) · 월평균 가계소득($\beta = .06$) · 자녀수($\beta = -.06$)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63%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주부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변인에서는 자원적정인지도 · 의사소통도 ·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제1의 영향변인으로 의사소통도가 나타난 것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가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이자, 주부의 효율적인 가정관리행동의 중요한 변인임을 증명해 준 결과라 본다. 이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부부관계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가정생활뿐 아니라 이웃이나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유대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작용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부부간 공평성 인지에서는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공평성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은 부부간의 심리·정서적 공평성보다는 가사노동분담과 자녀양육,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생활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생활 영역의 공평성 인지와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부간의 심리·정서적 공평성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가정생활에 대한 부부 각각의 기여와 보상을 평가하기 용이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의 공평성 인지가 실질적으로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관리행동 영역에서는 인간관계행동과 통솔행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현대가정에 있어 인적자원관리행동이 중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각종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가족간의 갈등 및 불화, 가족간의 결속력 약화 등으로 이어져 가정의 정체성과 안정성에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가정관리자는 올바른 가치관으로 가족원을 이끌어주고 가족간의 결속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용력있는 자세와 통솔자적 능력발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본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한 역동적인 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부간 공정성 인지도를 가정자원으로 살펴봄으로써 가정경영의 주체로서의 동반자적 부부관계 정립 및 그에 따른 효율적인 가정관리수행방안을 모색하여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도시주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조사대상 주부의 부부간 공정성 인지도는 배경변인 중 직업유무 · 의사소통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라 부부간 공정성 인지도에 차이를 보인 결과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역할과중에 따른 스트레스원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부부간 공정성이 확립된 상황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편의 심리 · 정서적 지원 속에서 주부의 취업생활이 이루어지는 상황 역시 주부의 부부간 공정성 인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에서의 공정성이 자녀수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자녀수의 증가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역할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두게 되므로 부부간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인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과 달리 주부의 교육수준과 성역할 태도에 따라 부부간 공정성 인지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역할 태도는 전통적인 측면과 근대적인 측면이 혼재하고 있어 부부간 공정성 인지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한국의 가정이 외형적으로는 핵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내면적으로는 남성우위적 여성희생을 강요하는 가족주의 가치의식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2)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은 배경변인 중 교육수준 · 건강상태 · 성역할 태도 · 자원적정인지도 · 의사소통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인간관계행동과 통솔행동이 높게 나타난 점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되나, 여전히 가정관리과정의 첫단계인 계획행동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는 행동수준이 낮았다. 이는 주부의 가정관리 의식이 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가족체계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관리보다는 여전히 관습적이며 소극적인 가사수행 중심으로 가정관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계획행동과 평가행동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체계적이며 능동적이라기보다는 편이위주로 가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가정관리성취도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부가 가정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능동적인 관리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 홍보차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부부간 공정성 인지도에 따라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수준이 차이를 보인 결과는 주부의 부부관계 양상에 대한 인지수준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의 효율성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부부간 공정성 인지도가 높을수록 주부의 통솔행동과 인간관계행동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주부도 가족의 정신적 · 정서적 · 물질적 생활을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통솔

- 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부부간 공평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가정경영에 있어서 경영주체를 주부만으로 보는 것이 아닌 외부체계와의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부부'의 인식을 의미한다. 즉, 부부관계를 '동등한 인격을 가진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Bernard, 1972)에서 볼 때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는 가정경영에 필수적인 변인이라 할 수 있다.
- 4)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는 의사소통도·자원적정인지도·인간관계행동·일상생활 영역의 공평성 인지도·통솔행동·생활수준 인지도·주부의 건강상태·월평균 가계소득·자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비해 의사소통도·자원적정인지도·생활수준인지도 등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가정생활만족도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에는 부부간의 심리·정서적 영역의 공평성보다는 가정생활에 대한 부부 각각의 기여와 보상을 평가하기 용이한 일상생활 영역의 공평성 인지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의사소통도는 주부의 부부간 공평성 인지도,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모든 영역에서 의사소통도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가족원의 합의와 해결이 용이하여 부부관계의 질 향상은 물론 효율적인 가정경영에 필수적임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현대가족의 핵심이 되는 부부관계의 공평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행동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감정이나 애정을 솔직히 표현함은 물론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부부간 공평성에 대한 관심은 증대해가고 있으나, 아직 국내 공평성 연구는 초기단계이므로

그 수준은 미비하며 연구범위도 편협하다. 또한 부부간 공평성 인지는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그 측정이 쉽지 않다. 이에 부부간 공평성 측정도구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공평성 측정이 가능한 척도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한편, 부부간의 공평성 인지는 부부의 결혼형태나 가정생활주기 등 가정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부 쌍방이 인지한 공평성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하여 부부가 서로 달리 인지하는 공평성 영역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행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장명옥(1976)의 척도를 원안으로 한 이정숙(1994)의 7개 하위 영역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급속한 사회·환경적 변화는 가족이 사용하는 인적·물적자원의 질적·양적 범위가 확장됨은 물론 가정관리의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으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동시에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의 여러 측면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김나비(1999), 기혼 취업여성의 결혼생활 공평성 인지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 박민자(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 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pp.71~109.
- 3) 박정희(1998), 한국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pp. 107~122.
- 4) 서리나·한경미(1999), 효과적 가정관리 조건에 관한 연구: 자원유용성 및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pp.105~120.
- 5)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6) 이명숙(1998), 자원문제와 가족관계, 가족과 미래환경, 1998년도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24~44.
- 7) 이연숙(1996), 가족체계 내 역동성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4(4), pp.295~308.
- 8) 이정우·이정숙·박미금(1998), 한국 도시인의 가치지향성 및 생활관리전략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pp.1~19.
- 9) 장병옥(1997), 취업주부의 부부역할수행·가정생활기여도 및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조정문(1995), 결혼생활의 공정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29, pp.559~584.
- 11) 차하순(1983), 형평의 연구, 서울: 일조각.
- 12) 최유정(1999), 한국 주부의 결혼생활 공정성 인지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3) Adams, J. S.(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pp. 267~299.
- 14) Davidson, B.(1994), A Test of Equity for Marital Adjust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1), pp.36~42.
- 15) Gager, C. T.(1998), The Role of Valued Outcomes, Justifications, and Comparison Referents in Perceptions of Fairness among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19(5), pp.622~648.
- 16) Larson J. H., Hammond, C. H. & Harper J. M.(1998), Perceived Equity and Intimacy in Marriag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4), pp.487~506.
- 17) Longmore, M. A. & Demaris, A.(1997), Perceived Inequity and Dep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 pp.172~184.
- 18) McQuillan, J.(1998), Gender and Marital Power: Explaining the Division of Labor, Perceived Equity, and Distress among Two-earner Couples,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Ph.D.
- 19) Mirowsky, J.(1985), Depression and Marital Power: an equity mod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pp.557~592.
- 20) Peterson, C.(1981), Equity, Equality and Marriag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pp.283~284.
- 21) Peterson, C. C.(1990), Husbands' and Wives' Perceptions of Marital Fairnes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1(3), pp.179~188.
- 22) Schumn, W. R. & Kim, J.(1982), Evaluating equity in the marital relationship: An alternative approach, *Psychological Reports* 51, pp.759~762.
- 23) Sexton, C. S. & Perlman, D. S.(1989), Couples' Career Orientation, Gender Role Orientation, and Perceived Equity as Determinants of Marital Power, *Journal of the Marriage and the Family* 51, pp.933~941.
- 24) Thompson, L.(1991), Family work : Women's sense of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2(2), pp.181~196.
- 25) Traupmann, J., Petersen, R., Utne, M. & Hatfield, E.(1981), Measuring Equity in Intimate Relation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pp.467~480.
- 26) VanYperen, N. W. & Buunk, B. P(1990), A Longitudinal Study of Equity and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4), pp.287~309.
- 27) Wesson, L.(1996), Relative Income, Power, Perceived Equit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career Families, State University New York At Buffalo, Ph.D.
- 28) Wilkie, J. R., Ferree, M. M. & Ratcliff, K. S.(1998), Gender and Fairness: Marital Satisfaction in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3), pp.577~594.

29) Yogeve, S. & Brett, J.(1985), Perceptions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pp.609~618.

30) Yoo, Y. L.(1996). Gender Equality, Equity, and Marital Quality in Contemporary Conjugal and Cohabiting Households(Division of Labor),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h. D.